



참사람됨의 인성교육
박재순 외 7인 지음
홍성사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들을 수동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국가의 기획 하에 양적이고 공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거기서 학생들은 국가가 만들어낸 교육과정 안에서 사회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리다 보니 우리나라 교육은 철저히 학생들을 소외시켜왔다. 이러한 교육의 현실 속에서 「참사람 됨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행복으로 가는 교육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사회에 던지며 참된 인성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덟 명의 학자와 교육자들이 각자의 대답을 내놓았다.

참 사람이 되어 가는 인성교육

참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를 생각해본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고풍이 품고 있는 반지가 절대적 가치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규정된 속에서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성찰을 하면서, 사람됨을 ‘참되다’, ‘거짓되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 원래, ‘참되다’의 의미는 ‘내용이 가득 차 있음’ 의미하는데, 반대로 내용이 없다면 ‘거짓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내용이 없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내용이 없는 사람은 거짓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 넣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 될 것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다. 결국, 참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 기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상태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삶속에서 보이는 ‘인간됨’을 채워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참사람 됨의 인성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참사람이 되어 가는 인성교육’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성교육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여덟 명의 저자 중 한 분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열의 발견을 통해 개인의 인성은 물론 미래의 새로운 문화, 문명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안창호, 이승훈, 유영모, 함석헌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은 실천적 사상으로인 씨알 사상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인성교육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흔히 인성이라고 하면 그저 착하기만 한 것, 그래서 살아가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의 성품”을 뜻하고, 심리학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으며,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가 지닌 사람의 속성”이라고 나와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본다면, ‘인성교육이란, 한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참사람이신 예수님의 성품

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책 속의 한 저자는 “교사는 부모 대신 교육을 맡은 이며, 또한,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돕는 자”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참된 교사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삶 속에서 가능성과 잠재력, 사명과 목적을 깨닫게 하는 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이 된다.

여덟 명의 저자가 교사인 나에게 묻는 것 같다. “당신은 참된 교사입니까?” 나는 앞서서 언급했듯이 ‘참되다’라는 말에 규정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참된 교사’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돕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무궁한 생명과 역사의 밀알(씨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 속의 한 줄

씨알사상은 참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의 철학이다. 참 사람은 인간의 본성과 목적을 실현하고 완성하는 사람이며 내가 나다운 나(주체)로 되면서 전체(나라, 인류, 하늘)의 자리에서 사랑(공동선)과 정의(공공성)를 실현하는 인간이다. 인성교육은 인간과 인성을 내적 주체의 깊이에서 전체로 이해하고 인성의 모든 측면과 차원을 실현하고 완성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과학적이며 국가를 넘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인물로 만드는 교육이다. -p.183